

위기에 더욱 집중하고 올인할 것

-복음으로 여는 베드로후서-

호세아 4:6, 베드로후서 3:18

정윤돈 목사님

- * **호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 * **벧후3: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전도와 교회와 학업과 전문성과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모든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미션과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 저는 청년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득 목사님들은 왜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의문이었다. 그게 바로 신학교육 때문이다. 신학교에서 4년에서 7년 정도 5대 신학과 교회사들을 배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1, 2, 3차 공회를 수백 년 동안 거치면서 석학과 주교들이 모여 몇 개월 동안 토론하며 낸 결론이다.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이 나온 게 아니다. 여러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니케아 신조를 통해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졌음을 선포했다. 그러고도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종교개혁자를 통해 신학이 성경적으로 돌아갔는데, 성경의 진리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너무 지도자중심으로 돌아가자 존 낙스가 현대 장로교시스템을 만들었다. 장로들을 통해 교회가 성경중심의 행정을 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장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미국에는 침례교가 많은데, 우리는 장로교가 가장 많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이고, 우리의 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신학이다.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에게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꼭 읽어봐라. 잠언에 나오는 믿음의 현숙한 여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 결혼과 연애 또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저는

그래서 항상 주석과 기독교서적을 많이 읽었다.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책을 찾아가면서 지식을 얻어야겠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넘어지고 자빠진다. 성경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흔들린다. 어디서 많이 들은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전혀 다르다. 교수님들이어도 다시 성삼위 하나님을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이상한 신자가 된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몰라서 그렇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대해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려면 겸손해야 한다.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에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는데 천주교는 이 말씀 해석을 잘못해서 베드로를 천주교 초대 교황으로 삼았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다. 여기서 ‘페트로스’는 돌이지만 남성명사로 ‘조약돌, 작은 돌’이라는 뜻이다. 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반석’은 여성명사로 ‘페트라’다. 큰 돌을 의미한다. 해석하자면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이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고백 위에 세운다는 말이다. 그래야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정확하게 진리를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역이 된다. 애국심과 충성심도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생긴다. 역사를 보며 문제와 갈등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도 생긴다. 한국의 식민지 역사를 제대로 알 때 우리나라에 필요한 부분이나 깨달음, 애국심도 생긴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계속 자라가야 한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신학과 교회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베드로전,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많은 약점과 단점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공부 안 해도 된다. 저는 항상 공부 안 하고 성경만 읽었는데 지금 석사, 박사 다 하고 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부하는 환경으로 보내신다. 여러분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시는데 저희 조부모님은 고아 수천 명을 먹이면서 빚도 많이 있었지만 잘 살았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걱정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모르고 다락방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걸 걱정해야 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저는 친구를 만나면 다 전도하고 술, 담배를 끊게 만들었다. 그게 능력이다. 한 사람을 교회화시키는 게 쉽지 않다. 이걸 하는 사람이 능력자다. 그럴 때 모든 영적문제가 다 해결된다. 여러분이 갈등하는 것도 전도하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이다. 양육의 단계를 경험해봐야 한다. 위기와 어려움을 걱정할 게 아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다혈질적이었고 조금하고 폭력적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잡으려던 말고의 귀를 잘랐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견게 해 달라고 하면서 물 위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기도 하였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꾸지람을 듣기도 하였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조금 안 되면 두려워하고 살려달라고 한다. 믿음이 커지려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한다. 강단에 더 집중해야 한다.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 삶에 적용됨을 체험해야 한다. 그리고 베드로는 잘난 척도 잘하고 나서기도 잘하는 성품이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세 번 부인했다. 그는 권위도 없고 믿음도 없던 사람이었다. 한 번은 후배인 바울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하였다.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도 이방인과 식사한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물에서 뛰어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소망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정말 좋기를 바랐다. 하나님을 알기 원했다. 그런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누구도 여러분을 돕지 않아도 된다. 저는 고아원에서 태어났다. 부

모님이 저를 돌보지 못해서 고아원 아줌마들이 저를 키웠다. 저는 고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알게 되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돕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이 저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셨다. 여러분도 부모님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다면 괜찮다.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첫째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노예, 포로, 속국, 광야생활을 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릴 때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때리신다. 열심히 살지 마라. 주님 앞에 모두 맡기시기 바란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행복하다. 복음중심, 하나님중심, 말씀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고통과 화살로 돌아온다. 복음의 무장이 되어있지 않으면 다 고통과 갈등과 저주로 다가온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게 축복이다.

1. 고난과 위기 때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할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성도들은 위기가 왔을 때 다른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영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올인(All in)해야 한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집중해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베드로는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다. 여기서 ① 믿음은 복음과 구원에 대한 기초적인 믿음이다. ② ‘덕’의 헬라어 단어 ‘아레테’는 탁월함, 뛰어난함을 의미한다. 믿음에 덕을 더하라는 말은 기초적인 복음과 믿음이 아니라 더 뛰어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겨우 믿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이 있다. 보좌를 움직이는 탁월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란다. ③ ‘지식’의 헬라어 단어는 ‘그노시스’이다. 그노시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고 체현한 지식을 의미한다. 100%전통성, 100%현장성, 100%시스템의 300%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그노시스는 300%응답이다. 300%의 지식이다. ④ 지식만 가지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안 된다. ‘절제’는 영어로 ‘self-control’이고 헬라어로는 ‘엔크라테이아’이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사고가 난다. ⑤ ‘인내’의 헬라어 단어 ‘히포모네’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뜻이다.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말한다. 어떤 분은 교회봉사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때려 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후대에게까지 물려줄 정도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해야 한다.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가치있는 것은 없다. ⑥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지한 태도, 경외함을 의미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했다. 영육 간에 흠과 티 없이 온전하라고 했다.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같이 거룩하도록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 지금 알코올 중독자여도 아무 상관없다. 이 잘못과 연약이 틀렸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을 붙잡아야 한다. 온전한 모습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라. ⑦ ‘형제우애’를 더하라고 했다. 이는 형제와 성도에 대한 사랑, 형제애를 의미한다. ⑧ ‘사랑’의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올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2)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올 아웃’ 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권면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집중할 것은 ‘올 아웃(All out)’할 것들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정욕과 문화에서 ‘올 아웃’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나중심, 돈과 쾌락중심, 성공중심에 빠져 있다. 그리고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 있다. 우리는 그들을 복음 안에서 ‘올 아웃’시켜야 하겠다.

(3) 베드로 사도는 ‘올 체인지(All change)’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권하고 있다. 이것에 성도들은 집중하고 올인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언제든지 망한다. 80~90%의 사람들은 새로운 걸 하지 않길 바란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항상 새로운 것은 어렵다. 뭘 바꿔야 할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영적인 속사람을 바꿔야 한다. 내 안에 자아, 성격, 고집, 교만을 바꿔야 한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

라, 응답이 임할 수 없다. 날마다 거듭나서 새로워져야 한다. 거듭나야 날마다 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란다. 가장 바뀌어야 할 것은 이단성이 있는 잘못된 신학이다. 지금도 신천지, JMS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증인, 제칠일신일교회와 같은 이단 단체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호와증인은 2천 년 전 공회에서 회의한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대의 이단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참된 진리를 지식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2. 베드로후서에 담긴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겠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성도들은 갈등하고 고민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우리를 통해 은혜가 보여야 한다. 굶어죽어도 우리에게 살림이 항상 있어야 한다. 육신의 고통이 있더라도 평강은 빼앗을 수 없다. 유관순 여사가 고문을 당해도 영혼은 평안했을 것이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 속 사람에는 살림이 있어야 한다. 선교사님들은 광야와 고난과 순교의 길이라도 그 안에 살림이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살림의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신다.

(2) 베드로후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결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주와 만물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지금 우주만물을 다 붙잡고 계시다. 그러나 말세에 주님이 오시면 우주 원리도 풀어지고 만물이 풀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세지말에 있을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현상과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 심판, 영원한 천국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도 계속 응답받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왕자가 왕자같이 살아야지 거지같이 살면 안 된다. 우리는 7이정표를 향해 도전해야 한다. 7이정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로마이다.

① 갈보리산 십자가의 은혜다. ② 감람산.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약속이다. ③ 마가다라방은 성령이 임해서서 땅 끝까지 증인되는 교회와 이 땅의 복음공동체다. 교회는 최고의 기관이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교회다. 교회 안에서 모든 걸 해야 한다. ④ 새롭게 선교하는 안디옥교회로 발전해야겠다. 이게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다. 그냥 예루살렘교회에서 안디옥교회로, ⑤ 아시아의 에베소교회로, ⑥ 마케도냐 빌립보교회로, ⑦ 로마교회로 변한다. 성경은 항상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한다. 결국 땅 끝이다. 이 모든 소중한 사역에 베드로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를 통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집중하게 하셔서 예비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 때에 가장 중요한 일에 기본적인 일에 집중하여 가장 영적인 것에 집중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